

# 바우솔

장현화 | 영교출판 편집부

영교에서 '바우솔' 이란 이름으로 내보이는

첫 번째 국내 창작 그림책

서점에 가 보면 책들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그림책 진열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그림책들이 놓이고 쌓여간다. 그런데도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많은 그림책들 중에 순수 국내 그림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의 책에 관심 있는 부모에게 물어보면, "그림이 좋아서 보면 거의 다 외국 번역서라서 우리 정서와는 안 맞고, 좋은 우리 그림책은 많지 않고..."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우리 출판사에서 유아 그림책을 기획할 때도 우리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판매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그림책을 외국도서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물론 소수의 출판사에서는 우리나라 그림책을 꾸준히 내고 있다.) 한편 한편 정성을 다해 낸 영교출판의 그림책이 우리나라 그림책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림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 순수 창작물과 그림책을 담은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다. '영교출판'이라는 이름이 딱딱하고 학습적인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우솔'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제일 처음 기획한 책이 '질경이 그림책'인데, 4계절 자연의 특징을 책으로 옮기기로 했다.

《아이 민들레의 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계절 중 봄의 이야기이며, 민들레를 소재로 했다. 글을 쓴 설용수 선생님은 교사 출신인 아동문학가다. 특히 아동극을 많이 썼는데, 그 때문인지 각 쪽마다 장면 장면을 생각해서 적절한 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토씨 하나라도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편집부에 연락을 해 왔다. 지금은 개인사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매일 서점에 나가 그림책을 보면서 많을 것을 느끼고 배운다고 한다. 그림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이다.

그림을 그린 허구 선생님은 1년 반 동안 그림 작업을 했다.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림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고치기를 거듭했다. 중간에 스케치를 보러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스케치를 보고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왜 사람들이 그분을 천재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흔히 볼 수 있는 귀엽고 예쁘기만 한 민들레가 아니라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새로운 캐릭터의 민들레가 창조되어 있었다.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색다르고 다양한 구도로 지금까지 보던 사물의 색다른 모습을 접할 수도 있었다. 시원시원하고 과감한 필치, 대담한 색의 사용은 보는 이의 가슴을 뻥 뚫어 주었다.

권태로운 오후 4시, 그림책을 펼쳐보며 얼굴에 미소를 띄어 본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다. 어딘가의 또 다른 바위틈에서 싹 싹하게 자라고 있을 많은 민들레들을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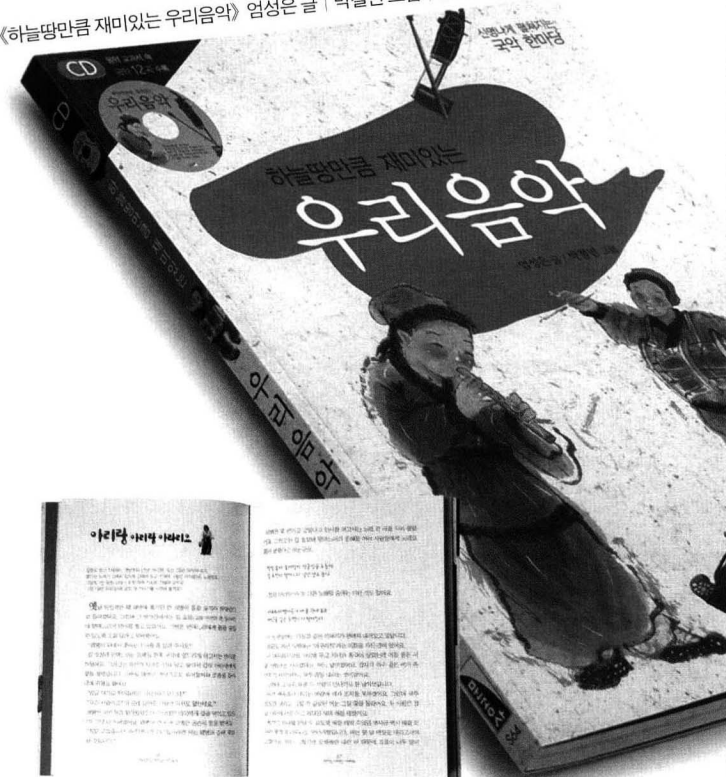
《아이 민들레의 꿈》 설용수 지음 | 허구 그림 | 바우솔(영교) | 32쪽 | 값 7,800원

# 문공사

신은정 | 문공사 편집장

## 국악의 중요성, 어린이들도 알아주기를

《하늘땅만큼 재미있는 우리음악》 엄성은 글 | 박철민 그림 | 문공사 | 120쪽 | 값 8,500원(CD포함)



지난 4월 2004년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는 우리 그림책들이 유례 없는 큰 주목을 받았다. 2권의 라가치상 수상과 동양적 화풍에 대한 관심 탓일 것이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문화산업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승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전통문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 국악은 명분과는 달리 사정이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국악방송이 탄생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내 국악교육의 비중을 높였다고 해도 대다수 우리들은 우리 음악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도 재미있는 우리 음악 교양서를 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음악을 모르고 우리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더욱 혼미해질 것이라는 명분과 함께 전통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출판기획서를 제출했고, 결국엔 독자들의 수요를 우려하는 영업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 음악의 전문가이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를 찾는 일이 첫 과제였다. 다행히 국악이론을 전공하였고, 국악방송에서 '이야기가 있는 전래 동요'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국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엄성은님을 만나 책의 방향 및 구성을 함께 의논하였다. 결국 원고 청탁 후 일곱 달 만에 완성된 원고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림은 수묵화에 남다른 개성을 보이는 일러스트레이터 박철민님이 맡아 주었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 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마당에는 우리 음악과 관련된 옛날이야기 아홉 편을 싣고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사물놀이, 청성곡, 지방의 아리랑 등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 음악을 입담 구수한 해설과 함께 담았다.

둘째 마당은 '옛 그림과 만나는 우리 음악'이라 하여 신윤복의 <거문고 줄 고르는 여인>, 김홍도의 <포의풍류도> 등 옛 그림 14 점을 담아 그림 속에 등장하는 우리 악기와 음악을 이야기로 풀었다. 우리 악기들의 사진자료를 실어 이해를 도왔고 수제천, 시조창, 대취타, 판소리 등의 연주 장면 등에 대한 사진도 게재하여 풍부한 볼거리가 되게 하였다. 책 속에 옛 그림을 실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여러 대학 박물관에 발품을 팔며 자료협조 요청을 하였고 사진자료는 국립국악원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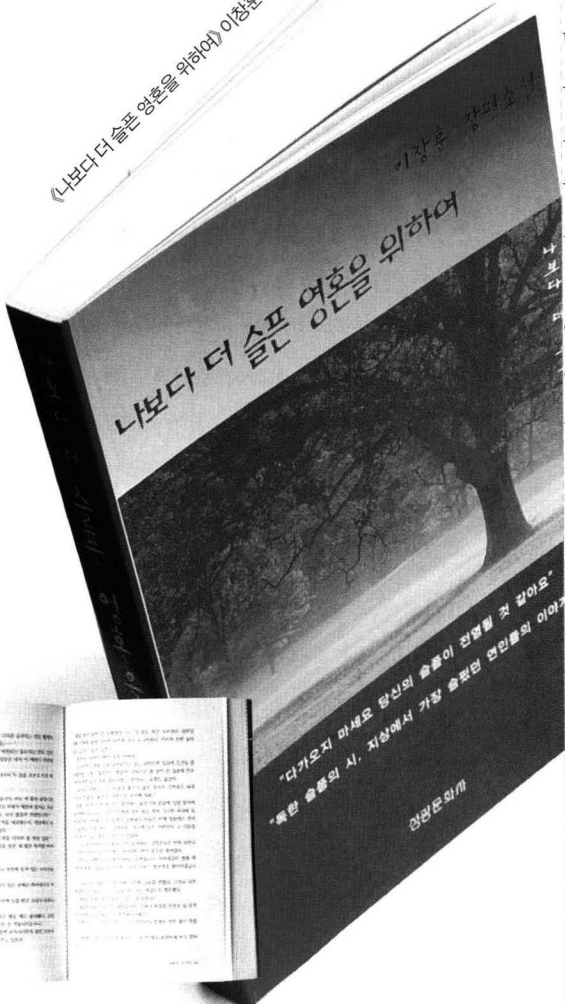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 음악을 직접 접하게 하기 위해 책 속에 우리 음악 CD 한 장을 넣었다. 국립국악원에서 음악자료를 제공받고 직접 녹음을 하는 등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와 작업을 거쳐 《하늘땅만큼 재미있는 우리 음악》은 태어났다.

부디 이 책이 오래도록 국악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길잡이가 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문공**

# 성광문화사

유다에 대한 오류와 편견, 그리고 연민

(나보다 더 슬픈 영혼을 위하여) 이창훈 지음 | 성광문화사 | 400쪽 | 값 10,000원



역사는 흘러간 것들의 기록이다. 또한 역사의 의미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그 기록이 해석되어질 때 참의미로 남는다. 그러나 당대의 역사는 언제나 승자에 의해 씌어지고 산 자에 의해 전달되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민족과 나라뿐 아니라 평전과 같이 개개인의 역사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누군가 그를 알고 있는 자가 자신의 상관관계로 얽힌 느낌을 가지고 썼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류와 편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쓴 역사를 놓고 볼 때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한 역사나 완전한 역사의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가룟 유다란 인물의 생애를 썼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에 대해 완전하게 굳어버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유다는 인류사의 모든 인간 중 간교와 배신의 대명사였으며 죄와 악을 말할 때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유다란 이름을 내세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다의 행적이 잘못 기록되고 잘못 해석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성서의 기록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일까. 이천 년 동안 내려온 고정관념? 아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영혼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기록의 노예, 역사의 노예가 되어 있다.

나는 유다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책을 통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해 보았다. 일례로 우리의 절대적인 선입관대로 유다가 탐욕만으로 예수를 온전 삼십 냥에 팔았을까? 황금 수백 냥이라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나귀 새끼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그 은전만을 요구하고, 왜 그것조차도 되돌려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이렇게 유다를 영원한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적에 대한 의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문학은 다른 기록과는 다르게 패자의 편에서, 죽은 자의 편에서 쓸 수 있다. 역사처럼 객관적, 사실적 기록만이 아니다. 문학에는 무한한 상상의 날개가 있다. 종교처럼 성스런 것만도 아니다. 문학은 성토평과 속속 사이를 날아다닐 수도 있다. 필자는 이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유다의 생애를 그려 보았다. 그러나 유다는 분명 종교 속에 나타난 종교적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실존인물이라면 그도 살았던 역사를 떠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누가 간과하라. 필자는 이미 오류를 가지고 이 책을 시작했다. 이미 전제했듯이 유다에 대한 거의 전무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살았던 종교적 인물인 그를 문학의 언어로 표현하며 생기는 한계 또한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경전처럼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글을 썼다.

웬일일까? 필자는 가룟 유다를 기록하며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유다와 같이, 아니 유다보다는 더 크고 무수한 죄를 짓고 사는 한 인간의 숙명이라... **■**

이 글은 저자인 이창훈 씨가 직접 써주셨습니다.